

# 십시일반... 학인 82명 뒷바라지

## 신행현장

### 화엄장학회 가족회원들

6월 1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금강사 은평법당에서는 법당 봉불식을 겸한 화엄장학회 6월 정기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당을 가득 채운 200여 회원들은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의 부처님을 모시는 의미와 업장 소멸의 원리에 대한 법문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경전 공부하며 장학·포교사업을 벌이는 화엄장학회는 기와불사보다 더욱 훌륭한 인재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의 수행과 업장 소멸은 물론 중생구제에 일익을 담당할 스님들의 공부를 뒷바라지 하는 일은 어느 불사보다 거룩한 복전입니다."

종범스님의 법문을 들은 회원들은 금강사 신도와 함께 무사히 3존 불을 모시게 된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린이 포교의 거점이 될 평법당에 자비공명이 충만하기를 원했다.

경전 공부와 장학사업, 봉사활동을 위주로 신행을 펴고 있는 화엄장학회는 가족 단위로 신행을 펼치는 이색 신행단체. 모두 80여 세대로 구성된 회원 가족들은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에 금강사에서 정기 가족법회를 갖는다.

정기법회는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화엄장학회 회장인 본각스님의 <화엄경>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 강독과 '부처님 일대기'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본각스님의 법문은 초심자에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근기에 맞는 알기 쉽고 자상한 것이 특징. 화엄장학회가 탄생한 것도 불자들을 사로잡는 스님의 탁월한 법문 때문이었다. 지난 94년 봄 화엄장학회는 본각스님의 불교방송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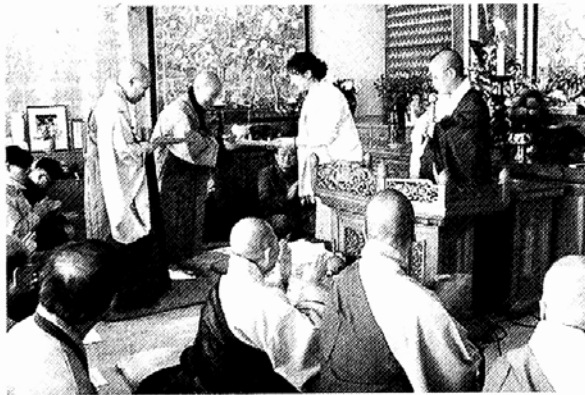
### 95년부터 장학사업

### 80여세대 매달법회

### 경전공부-봉사활동

엄경 십지품'을 청취하던 불자들이 중앙승가대학교 비구니 수행관 부속 사찰인 대원암과 보타사에 모여 월례법회를 갖던 중, 95년 가을 학기부터 학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태동했다.

화엄장학회 고문 양도공(66) 거사는 "당시 본각스님이 17억원이나 소모된 비구니수행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인스님들을 위한 장학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그때부터



◇화엄장학회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82명에게 모두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화엄장학회의 장학금 전달 장면.

경전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행이란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화엄장학회가 13회에 걸쳐 82명의 학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6,000여 만원. 결국 회원들의 집이 부유해져서 아니었다. 1~3만원씩,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데로 씀지돈을 모은 것이 장학사업의 밑천이 되었다.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이정순(43) 보살은 "매 학기마다 어떻게 장학금을 마련할 지 막막하지만, 중생구제를 위한 고승을 배출한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모으다 보면 저절로 기금이 모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화엄장학회는 장학금을 비롯한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지원 등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연 2회 의정부 지

역 군법당과 소적새마을 등 복지시설을 위문하며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은평법당 개원을 계기로 본각스님의 열연인 새싹불자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hwaum.or.kr)도 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포교에 나서면서 회원 배가 운동도 벌이고 있다.

본각스님은 "불교사상 전체를 총괄하면 지혜와 자비가 핵심이 되는 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를 밝혀 나아가며 장학사업의 추진은 자비의 실천임을 알 수 있다"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가 어우러져 서로 격려하며 수행하는 신행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3444-8002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화 내지 말고 욕심 적게 더위도 덥지 않는 지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올 여름도 어지간히 더울 것입니다. 이미 더위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가 올 더위를 근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덥지 않게 사는 법 혹은 더위를 다스리는 생활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여름을 덥지 않게 보내려면 우선 마음의 더위를 떨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연의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마음의 더위는 떨어야 하고 자연의 더위는 피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마음의 더위는 자신이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떨어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열이 나는 것처럼, 단순한 이치를 들여다보시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덥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은 원가를 갖기 위해 마음을 움



석암스님

석암 포교원

주지 일이 아닙니다. 방편도 다양할 색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근기도 다 달라서 그 성공 여부도 확실적일 수 없는 것이 마음공부 아닙니까. 몸에서 솟아 오르는 열을 떨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무엇일까요? 나는 '한 박자 느리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겁지겁 살면 더 덥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야 덜 덥습니다.

여러분은 참선을 할 때 수식관을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고르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영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고르는 자세에서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솟아나는 열을 떨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연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서(避暑)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활인들이 마냥 물놀이 갈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더위를 피하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주변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최상의 피서라 생각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여름을 남보다 더 덥게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부대끼는 일보다 짜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여

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 주변의 물건들을 제자리에 반듯하게 정돈하는 것도 시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생활 현상이 복잡하고 난잡하면 늘 산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더위를 더 증폭시킵니다. 마음을 다스려 몸의 온도를 낮추고 주변을 정리하여 세상의 기운을 다스리면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박자 천천히 한 호흡 고르게

직이는 것인데 그 작용은 열을 내는 것이거든요.

화내고 탐내는 마음은 열을 동반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마전선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압골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살다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불속 화를 내고 허망한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몸에 열을 채웁니다. 그래서 늘 험악 거리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천둥 치고 번개 치는 하루하루는 늘 불안정한 기류를 형성해 남에게까지 열을 보태줍니다.

여름은 이미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마저 매일 열을 뿜어내고 있으니 덥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의 몸에서 차오르는 열을 떨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으면 열 발을 일도 없고 열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몸 안에서 열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삼복 더위라도 몸을 느끼는 더위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 생활속의 불교

## 산같이 물같이 살자

링 빈 마음엔 한계가 없다. 참 성품은 링 빈 곳에서 스스로 발현된다. 산은 날 보고 산 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날 보고 물같이 살라 한다.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살라 하고. 집착·욕심·아상·중오 따위를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 살라 하고. 그러면 비었기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다고 한다.

수행은 쉽다. 이것은 내가 자랐고 저것은 내가 안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항상 마음이 바빠서는 도무지 자유를 맛볼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이것'에 붙들어 매어놓고 '저것'에 고리를 걸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항상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수행은 비움이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갖는다 하는 생각 또는 짚어지, 잘못 되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생각을 버리고 빈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쉬고 비우기는 커녕 하는 일마다에서 집착과 욕심을 키우며 산다. 일이 뜻대로 안된다고 안타까워 하고 잘못 필까 봐 겁을 낸다. 번뇌 망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 얽매어 찢질찌라 살고 있다.

쉽과 비움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無爲)과 다르다. 하기는 하되,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되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짜증을 부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다. 쉽과 비움은 달리 말하면 놓고 맡기는 것이다. 놓고 맡길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이치가 그러하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허공같이 맑다고 한다. 그러므로 놓고 맡기는 것은 본성에 순응하는 일이다.

그저 본성이 그러함을 믿고 구태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의 작위(作爲)를 부리지 않으면 그것이 놓음(無)과 맡김(無), 쉽, 비움(無)이다. 마음의 험악거림을 쉬고 나를 앞세우는 욕심을 비운다면 내 마음은 본성 그대로를 닮게 된다. 빈 그릇같이 되는 것이다. 龍眼

##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용 제사용)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항공양을 올리거나 오분향제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길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에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견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의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울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 춘추복: 촉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 하복: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습니다.
- \* 장삼: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 가방: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님에 가사봉사 보시하십니를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만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판매가격표

종류	구분	판매가
승복	저고리 비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비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랑		30,000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맞춤 주문으로 생산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053)764-4114 011-9850~4400